

4월의 기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 1.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DCEM을 통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3.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일수록 주님께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6. 우크라이나에 전쟁 종식과 평화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에게 참 자아가 임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골짜기를 내려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바쁠 때에는 “용기야, 저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로 내려가는 길에는 짐승들이 숨어있다가 뛰쳐나오거나 새들이 갑자기 날아가거나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가면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그런 것 겁나지 않고 무섭게 생긴 귀신이 나와도 나는 어머니가 귀신을 능히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으로 여겼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연약한 여성과 같이 행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행하시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막힌 일을 이루어 줍니다. 꿈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갖게 해주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고, 창조적인 선언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다가올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하나님 편에 서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내 편에 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편 1절~3절)’.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이것을 이기고 희망의 삶을, 미래적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0년 개최 해외 성회>

나고야 성회



▲ “나고야예수축제” 성회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나고야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나고야예수축제”



▲순복음나고야교회 헌당식 및 일본정부 종교법인 승인 기념

도쿄와 오사카 가운데에 위치해 주쿄(中京)지방이라 불리우는 나고야는 깨끗하면서도 도시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중소도시로, 인구는 대략 2백 30만명 정도(2015년 기준)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갖는 나고야는 일본동서지역의 문화가 적절히 융화되어 있고, 전통적으로는 섬유와 도자기 산업이, 지금은 일본 최대 무역항 나고야항을 필두로 도로, 철도, 항만 산업기반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자동차공업과 정밀기계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해 세계 산업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늘지 않고 일본의 전통종교도 그다지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20여년 전 동해선교회의 등 몇몇의 교파와 선교단이 개척에 착수하여 선교의욕의 바람이 불 때, 조용기 목사는 2000년 11월 이곳 나고야에 영적변화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성회를 인도했다. 2000년 11월 23일은 나고야국제회의장에서 인도했고 24일은 순복음나고야교회 헌당예배에 참석했다. 조목사는 이들 성회에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즉 기쁨과 축복 그리고 행복에

대해 설교했다. 3천명이 수용 가능한 나고야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나고야예수축제”에서 1, 2, 3층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인간의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조용기 목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본 성회는 1부에서 중부 일본교회회를 중심으로 찬양축제를, 2부에서는 다카모토 아끼라목사(아이치현에 소재하는 신시로교회)의 설교, 3부 순복음나고야교회 김유동목사의 인도로 조용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날 24일 조용기 목사는 순복음나고야교회 헌당예배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순복음나고야교회를 통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다. 나고야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에게 파송받은 김유동 선교사가 1989년 9월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다. 당시 일본에서 순복음교단으로 최초의 종교법인을 얻게 된 나고야교회의 헌당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교활동을 인정받는 동시에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순복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깊다.



2000년 한 해동안 개최된 조용기 목사의 해외성회는 미국을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지역에서 열렸으며 약 3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 중 약 4만여 명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만 수백여 명에 이른다. 조용기 목사는 특히 성령을 통한 기도운동에 대해 강조했다. 호주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조용기 목사 성회 이후 성령을 통한 기도운동이 확산됐으며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했다. 조목사는 미얀마, 일본 등 불교국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 불교국가에 대한 기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러한 조목사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 바로 10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교회성장대회와 11월 나고야 성회였다. 이것은 또한 일본의 1천만 구령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주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성령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께 비유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일지한 아들에 비유되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신 보혜사에 비유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6~21절)

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일체를 보고 가까이서 보면 개개의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공생애 모든 사역에 함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님의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주님의 보내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과 성결함과 성령 충만의 자원이 되십니다. 또, 치료와 축복의 자원이 되시고 천국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 1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삶에는 고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들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

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도록 십자가로 이끄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이나 가정, 사회와 국가에서 부조리와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정직과 성실과 충성스러운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시와 영경귀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영경귀를 내렸다고 했는데 오늘날 땅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시와 영경귀가 짙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가시와 영경귀를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가시와 영경귀를 없애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넓은 장막 같은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내 마음을 인지하시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확실성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발자취(3)

‘믿음의 어머니’ 최자실 목사와의 만남



▲ 순복음신학교 재학시절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



▲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 원편 의산소통이 교회 중의 역할을 했다



▲ 조용기 목사의 목사 안수식에서, 아버지 조두천 장로와 조용기 목사

1950년대 후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시작점이 된 대조동 천막교회를 창립할 당시에 한국 사회는 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끼니 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들던 때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울 대조동에 세워진 천막교회에는 심상치 않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군데군데 찢어진 군용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에는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용기 목사와 함께 천막교회를 세운 최자실 목사의 꿈은 사실 처음부터 교회 개척에 있지는 않았다. 당시 전국에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넘쳤고 최자실 목사는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보살피고자 고아원 운영에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자실 목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며 육의 고아만이 아니라 영의 고아를 구제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 후 최자실 목사는 대조동 집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 찬

송과 성경말씀을 가르치며 영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최자실 목사는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17세에 간호사를 시작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서울에서 성냥공장과 비누공장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에 전념 할수록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남편과 사이도 소원해졌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 만팔을 하느니라로 보내며 삶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운영하던 사업체들마저 도산하게 되자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 버린 최자실 목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삼각산에 올랐다.

하지만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교회 부흥회로 인도해주었는데 부흥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신학을 배워 영의 고아를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심한 최자실 목사는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하여 조용기 목사를 만나 동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학교 시절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는 각각 학생회장과 전도부장으로 역임하며 신학교 생활에 매진했는데, 특히 노방전도에 앞장섰다. 조용기 목사는 노방전도를 나서면 설교를 도맡아 하며 신학생들을 이끌었다. 조용기 목사는 원래 목회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신학자로서의 길을 꿈꾸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 급성 폐렴을 앓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용기 목사의 꿈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조용기 목사는 고열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최자실 목사가 앞장 서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호해주었고 차츰 회복할 수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조용기 목사는 최자실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고, 이에 응한 최자실 목사와 함께 서로가 기도로 중보 하는 동역자로서의 첫 발을 디뎠다.

뉴스레터 4월호에서 이어집니다.